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과 자유 대한민국은 복이 있다

성경말씀: 시33:1-22

엿그제 금요일은 추석 명절, 쉬면서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추석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한 것 찾아서 감사
공기, 음식, 가족, 친구, 교회, 성도들, 국가, 천국 이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감사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찬양, 예배, 감사하고 싶은가? 그런 마음을 길러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살전5:16-18)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인간의 특징: 남을 신뢰하지는 않는 존재, 어쩔 수 없이 신뢰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는 안 한다.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기도하며 신뢰하지 않는다. 언제 기도하고 찬양하며 의지하는가?
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의지하고 복을 받는다(12).

Bible.org, Steven Cole, 델러스 신학 대학 < >

시33의 대상은 의로운 자들, 올바른 자들(1)이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

이런 사람이 해야 할 일: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1)

33편 저자 모른다. 32, 34는 다윗의 시, 어쩌면 다윗, 가능성이 크다. 그는 시인, 찬양, 기도, 감사
인생을 살며 다윗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드물다. 이런 저런 상황에서 이것저것 의지함, 그런데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림,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음을 수없이 경험, 자기
장인이 그를 죽이려 함, 요나단(삼상20:3), 가드 왕 아기스(삼상21:13), 시56:1, 8
이런 때에 주님의 구출이 이루어지면 쏟아지는 기쁨과 감사, 예배

찬양과 감사의 의무(1-5)

1. 의로운 자들은 각종 악기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1-3).
입, 악기 하나님의 선물, 우리 교회 찬양대, 오케스트라, 중창단, 개개인 찬양, 공예배 찬양
2. 찬양의 이유(4-5),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4), 4절은 이유의 for,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right, left가 아니다. 1절의 의로운 자들 역시 right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세력이 거짓으로 선동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 진리가 이길 줄 믿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산물이고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는 진리의 하나님의 산물, 그래서 이것이 이긴다. 대한민국은 진리의
하나님이 세운 국가, 북한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세운 국가, 그래서 반드시 망한다.
3. 왜 그런가(5절):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신다. 의(righteousness)는 옳은 것, 하나님은 바르게 판단하
신다. 그래서 이 땅은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다. 잠시 악이 이기는 것 같으나 선이 이긴다.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6-11)

1.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6-9).
6절 하나님의 세상 창조, 말씀으로 무에서 유 창조,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신뢰 불가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즉 우주, 그 안의 모든 군대(해와 달과 별들) 창조됨
무한한 우주(시8:1, 3-4), 이런 우주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지 않음: 말씀으로 지으심(6)
첫째 날 창1:3-4, 빛이 있으라,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으라(14절)
대양을 보라(7), 시편 기자가 본 바다: 지중해, 홍해, 지구 표면의 삼분의 이 바다, 태평양 평균
깊이 4200미터, 가장 깊은 데 10,000미터, 그런데 셋째 날 그 바닷물을 곡식을 쌓듯이 쌓으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곧바로 이루어짐(9)
하늘이든 바다든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8).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엿드려 감사하며 경배
왜: 이 모든 것은 그냥 생길 수 없다. 수백 억년 진화론 유물론 다신론 불가능
2.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드러난 그분의 권능을 볼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10-11)
우리가 인생 계획을 다 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파수꾼의 경성함 허사

비가 온 뒤 한강에서 떠내려가는 나무를 보라. 그 안에 박테리아, 미생물, 벌레 등, “내가 이 나무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함, 아니다 강물이 끌고 가고 있다.

교만한 사람: 내가 역사의 방향을 틀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삼상2:7-8; 단4:). 파라오, 느부갓네살, 고레스, 아하수에로, 헤롯, 카이사르,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이 세상 통치,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내 뜻을 이루겠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들은 그 모든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 회계보고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의 일을 보라. 의기양양, 그러나 행4:27-28을 보라.

악한 자들 예수님 십자가 처형,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 그들은 그들의 일로 심판 받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과 민족은 복이 있다(12). 신7:7-8

이 구절, 미국 대통령 취임 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원래 이 민족은 이스라엘, 그들은 불순종 반역 민족,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올

불순종의 결과: 롬11, 그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방황, 이방인 교회 시대, 이방인 구원

그러나 그들은 다시 되살아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대한민국 성정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세워진 국가

자유 가치 모름, 교회들이 타락함, 심지어 자유 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가려고 함 그러나 이 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악한 자들의 계략은 무너진다(10), 자유와 통일, 화평을 주시려는 그분의 계획만 영원히 선다(11).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반드시 다시 선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창조 세상 속에 드러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인류 역사 계획 속에 드러난 말씀의 능력을 볼 때, 어떤 반대가 있어도 그분의 말씀이 승리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인지할 때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13-22).

1.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13-17).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13), 모든 거주민들(14), 모든 일(15)

하나님의 결론(16-17), 싸움을 싸우는 왕, 군대, 말, 자기 힘으로 이기는 사람은 없다.

구원받으면 바르게 살려고 한다. 바른 방법들을 고안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의지하면 패망한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종교인들의 문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무제: 전적으로 신뢰, 기도, 감사, 예배, 개인의 문제: 전적으로 신뢰, 기도, 감사, 예배

2.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18-19)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잔꾀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쓰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고통을 당한다. 죽음을 경험한다(19).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한다. 고후1:8-9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소망을 갖는다(20-22).

나라가 어렵다. 국방, 경제, 교육, 사회 시스템, 윤리와 도덕, 교회의 타락, 정신 상태

개인적인 문제도 많다. 죄, 가정, 사회생활, 경제, 교회 생활, 학업, 진학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하다(20). 그분을 기뻐한다(21), 기대한다(22),

4-5, 12, 22절을 다시 한 번 읽고 그분을 신뢰하자.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